

달리는 사람들, 도시의 익숙한 풍경이 되다

광주신세계갤러리 기획전 'Run! Run! Run!'...오는 28일까지

회화·조각·영상부터 GPS 아트런까지, 예술에 투영된 러닝 각자의 리듬과 속도, 에너지로 몸이 기억하는 시간 흐름 투영

언제부터가 달리는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합한' 취미가 됐다. 이른 아침 광주천과 공원, 도심 곳곳을 달리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일도 더는 낯설지 않다. 운동을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된 러닝.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이러한 시대의 풍경을 예술로 풀어낸 기획전 'Run! Run! Run!'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광주신세계백화점 본관 1층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움직임인 '달리기'를 주제로 한다. 달리기를 통해 현대인의 리듬과 속도, 에너지, 그리고 삶의 태도까지 함께 살핀다.

전시장 입구부터 색다르다. 육상 트랙을 연상시키는 연출로 포토존을 구성했으며, 러닝을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 요소가 관람객을 맞는다.

참여 작가는 강덕봉·성낙진·성립·윤예지·이우성·진훈·네룡TV 7명이다. 회화와 조각, 영상, 드로잉, 기록 작업 등 서로 다른 매체를 통해 각자의 방식으로 달리기를 이야기한다.

먼저, 성립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세

롭게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 중·노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세대가 달리는 모습을 담았다. 같은 달리기라도 나이에 따라 속도와 리듬, 에너지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몸이 기억하는 시간의 흐름을 떠올리게 한다.

성낙진 작가는 대표 캐릭터 '미스터 블랭크'를 선보인다. 이름 없는 현대인을 상징하는 '미스터 블랭크'는 이번 전시에서 힘차게 달린다. 러닝 붐 속 현대인의 모습을 비춰보는 또 하나의 창처럼 다가온다.

실제 마라톤 완주 경험까지 지닌 윤예지는 '맹맹린' 포스터 작업으로도 잘 알려진 작가다. 강아지와 함께 달리는 모습을 담은 작업과 러닝의 순간을 기록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달리기를 이어가는 태도와 창작을 지속하는 과정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보여준다.

이우성 작가의 대형 천 작업 '땀 흘리며 달려간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달리는 마라톤 장면을 연상시킨다. 회사원과 학생, 군인, 어르신



왼쪽부터 육상 트랙을 연상시키는 전시장 입구 포토존, 강덕봉작 '일상이 된다는 것' 조각 작품(앞쪽)과 이우성작 '경계를 달리는 사람'(왼쪽)·'땀 흘리며 달려간다', GPS 기록으로 완성한 네룡TV의 '아트런'.



등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화면 안에서 뒤섞여 있다. 작품 '경계를 달리는 사람' 역시 일상을 살아가는 군중의 움직임을 통해 공동체의 에너지를 보여준다.

16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수상자이기도 한 진훈 작가는 도시 배경의 'run!' 연작과 '선착순' 등을 선보인다.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아이들의 달음박질은 달리기가 지닌 양가적인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 뻑뻑한 아파트와 집단 주거 공간을 그린 작업들은 오늘날 도시인의 삶과도 맞닿아 있다.

강덕봉 작가의 조각은 달리는 몸의 에너지를 입체적으로 펼쳐 보인다.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형상은 달리는 사람의 역동성을 연상시키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몸들이 만들어내는 긴장감 또한 느껴진다. 빠르게 익숙해진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한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러닝 인플루언서 네룡TV의 결과물에도 눈길이 모인다. 그는 광주에서 담양이나 화순, 함평 등으로 달려가 음식을 먹는 콘텐츠로 많은 러너들에게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에선 GPS 기록을 활용해 그림을 완성하는 이른바 '아트런' 작업을 선보인다. 실제로 광주 도심을 달려 키스 해링의 강아지와 하트, 고래, 꽃, 고무마 등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익숙한 도시의 길이 하나의 드로잉이 되는 셈이다.

전시장 곳곳에서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특히 GPS 아트런 작업 앞에서는 실제 위치를 찾아보거나 직접 따라 뛰어보겠다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세대는 달라도 '달린다'는 공통의 경험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이 이어졌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전시 기간 동안 스탬프 미션과 아트런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수영 큐레이터는 "예술과 러닝이 만나는 경험을 통해 활기와 즐거운 에너지를 나누고자 했다"며 "누군가는 빠르게, 누군가는 천천히 살아 가듯 이번 전시도 각자의 속도로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최명진기자

동명동 카페거리, 디저트 매력에 빠져들다

동구문화관광재단, '디저트 플라마켓' 성료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이 지난날 30일 동명동 여행자의 집에서 '동명동 디저트 플라마켓'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동명동 카페거리의 특성을 반영해 기획한 디저트 특화 플라마켓으로, 지역 디저트 브랜드와 시민, 관광객을 연결하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운영됐다.

행사에는 두껍베이커리, 빵글빵글, 스킨스, 아비오, 엘리아, 엠버스 베이크샵, 이소 양과점, 인세인쿠기, 슈청과, 치너스 등 지역 디저트 브랜드 10곳이 참여했다. 소금빵과 스킨, 쿠키, 에그타르트, 치즈케이크 등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특히 동명동을 비롯한 동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로컬 브랜드들이 참여해 광주만의 디저트 문화를 소개하고 소비자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방문객들은 한자리에서 다양한 디저트를 맛보고 구매하며 동명동 카페거리의 매력을 경험했다.

행사장에는 판매 부스와 함께 여행자의 집 야외광장을 활용한 휴식 공간도 운영됐다. 방문객들은 인근 카페에서 구매한 음료와 함께 플라마켓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고, 여행자의 집 공간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행사 당일 진행된 SNS 인증 이벤트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의 참여가 이



동명동 여행자의 집 '동명동 디저트 플라마켓' 행사 모습

어졌다. 참가자들은 행사 현장과 여행자의 집을 촬영해 개인 SNS에 공유하며 동명동 여행자의 집과 지역 디저트 브랜드를 알렸다.

이번 플라마켓은 지역 상권과 관광 거점을 연계한 로컬 콘텐츠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문창현 대표이사는 "이번 동명동 디저트 플라마켓은 지역 디저트 브랜드와 시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로컬 관광 콘텐츠로 운영됐다"며 "앞으로도 동명동 여행자의 집이 지역 상권과 상생하며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전통채색화에 담아낸 행복·소망

최속의 초대전, 30일까지 무안예술한켄 갤러리

전통채색화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을 함께 담은 도장 최속의 작가의 초대전 '시공간의 초월'이 오는 30일까지 무안군 복합문화센터 무안예술한켄 2층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과 작가가 오랜 시간 창작해온 다양한 전통채색화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작가는 지난 10여년간 작업해온 결과물을 한자리에 모아 관람객들과 만난다.

전시에서는 '영락도', '책거리', '행복모란', '길상호랑이', '운용문항아리', '매죽문항아리' 등 전통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모란과 호랑이, 책거리, 정화백자 등 다양한 소재를 작가만의 색깔과 표현으로 풀어냈다.

작가는 전남대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뒤 38년 동안 미술교사로 재직했으며, 2016년부터 한국전통채색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전시는 무안복합문화센터 초대 개인전으로 마련됐다.

최속의 작가는 "전통채색화는 옛 그림을 재현하는 작업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삶의 염원을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이어가는 작업"이라며 "작품을 통해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고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와 위안을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영락도'

묘이장 · 개장

가족묘 조성 / 개장 / 묘지이장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장 전문 ☎ 문의) 062-464-3466